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일 화요일 음 9월 3일 (10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70%	제 주	80%
70%	성 산	80%
70%	고 산	80%
70%	서귀포	80%

제주도는 호리고 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30~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침 기온은 22~23°C, 낮 최고 기온은 25~26°C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5.0m로 높게 일겠다.

해돋이 06:28	달뜨기 08:55
해질 18:19	달지기 20:18
물때 만조 12:22	간조 06:26
	18:54

주간예보	〈문의 ☎국립연구소 131〉
내일	호리고 비 23/26°C
모레	호리고 비 21/25°C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위험

☀

자외선지수

보통

월드뉴스

소녀상 다시 전시... “전시회 재개 합의”

6~8일쯤 전시 시작될 듯

우익 세력과 일본 정부 등의 압박 속에 중단된 소녀상 전시가 일본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 선보였다가 중단된 전시회 ‘표현의 부자유전(不自有展)·그 후’를 재개하기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와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실행위원회가 30일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6~8일부터 전시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전시 중단 문제를 놓고 현지 법원에서 이날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에서 합의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경비와 관련한 협력, 사전 예약자에 대한 순번표 배부 등 전시 재개를 위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에 설치된 소녀상.

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추진위원회 측이 이를 수용해 화해가 이뤄졌다.

전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관람객에게 교육을 하는 것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이치현이 설치한 검증위원회 중간 보고서 내용을 관람객에게 미리 알리는 것 등이 오무라 지사의 조건에 포함됐다.

일정이나 세부 조건 운용에 관한 협의 과정에 별문제가 없으면 소녀상 전시는 중단 한달여만에 다시 시작돼 14일까지 전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칼럼



이 남 호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

현재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가 조성되고 있다. 이 캠퍼스에는 제주대학교 3개 학과와 제주관광대학교 1개 학과가 이전해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하게 된다. 이전 학과는 식품, 화장품, IT 및 게임 관련 분야로서 제주도 미래산업과 관련된 분야이다. 최근 교육부는 제주대가 제출한 제주첨단캠퍼스 설립계획을 승인했다. 첨단캠퍼스 내에는 제주대와 제주관광대의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연구공간도 조성된다. 현재 캠퍼스관과 기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캠퍼스

업연구관 2개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내년 준공 후 교육부에서 캠퍼스로 인가받게 되면 공식적인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이 시작된다. 또한 30개 내외의 입주기업들을 모집해 기업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제주 첨단산업단지 캠퍼스 조성공사는 산업자원부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산업발전 전략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캠퍼스 내에 기업이 공존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제주산학융합지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3700평의 부지 내에 캠퍼스와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현재 13개의 산학융합지

구가 지정돼 있으며 올해에도 새롭게 4개의 신규 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성과와 지역발전 동력을 산학협력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단지이다. 산학융합은 산학협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융합은 느슨한 형태의 협력과 달리 산업체와 대학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산학은 물리적 연결을 뛰어넘어 화학적 결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확대발전시켜 자체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 산학융합은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지

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제주도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제주 성장의 원동력은 대규모 투자와 인구 증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 인구 유입도 예전만큼 못하고 외부 투자도 시들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도 호의적이지 않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한 자본투자가 아닌 기술과 자본이 함께 투자되는 기업의 유치도 필요하다.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미래산업 육성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기에 제주 첨단 산업단지 캠퍼스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방법



문 해 민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가을 날씨의 외부활동을 하기에 적격이다. 아름다운 가을 산의 정취를 느끼고자 유명한 산마다 등산객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가을 산은 아름다운 만큼 번덕도 심하다. 낮이 짧아지고 기상변화가 심해 산행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계절이다. 가을철 산행에서 주의할 점을 소개한다.

첫째, 가을철에는 날씨가 수시로 변할 수 있어 산행 전에 날씨를 꼭 체크해 되도록 화창한 날에 산행을 하고, 산에서는 일몰시간이 빨리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찍 등반을 시작해서 일찍 하산하는 게 좋다.

둘째, 산행을 하기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팔뚝 등산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등산화를 착용해 발목을 보호해야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며, 기온 차가 심한 산속에서는 저체온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등산복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랜턴, 응급의약품, 우의, 여벌의 의복 등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등산경험이 거의 없거나 평소 상시 운동을 즐겨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한 등산으로 인해 근육통과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산행 코스를 정해야 한다. 산행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뜨거운 물로 씻으며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음주산행이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산행은 조난을 당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에서의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의 즐거운 산행을 위해 소방에서는 등산목 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 세계 제주인이 모이는 날



채 중 헵

제주도 평화대외협력과장

2019년 기준 해외 제주인은 12만명으로 대부분 일본과 미국, 중국에 거주한다. 국내의 거주하는 도의 제주인을 합치면 약 65만명으로 파악된다.

해외 제주인들은 낯선 이국생활에서 온갖 역경을 겪으며 고군분투했지만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했다. 이들의 깊은 애향심은 마을과 교량시설을 갖추고, 도로를 넓히고 만들며, 상하수도 시설과 학교, 마을회관 건립까지 이끌어 고향의 구석구석을 발전시켰다. 특히 재일 제주인들이 1984년까지 20년간 고향에 기증한 감귤묘목은 농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감귤산업을 제주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됐다. 이외에도 식적·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관

광·경제 분야까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고향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재외 제주인 1세대들은 고령이고, 고향 제주에 대한 2·3세대의 정체성과 정서적 유대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 이들이 큰 역할을 맡아왔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가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용 확대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제주도는 재외 제주인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2019 세계제주인대회’이다. 10월 12~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제주인들을 결집시키고자 한다. 제주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내의 제주도민들이 고향의 파스한 정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추억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시정 소식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묘지의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인근 토지주에게 알려드리는 사업

○ 대 상

- 토지 안에 있는 미등기 묘지로서 지번 지역이 있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등으로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인접 토지주 신청

○ 대상토지 :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 이면서 미등기인 묘지

○ 시범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2020년 본격 시행

○ 신청자격 : 본인 토지 경계내의 묘지로서 묘지와 접한 토지주가 신청

○ 접 수 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064-728-2161, 2162)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제주시 노인민속경기 대회

○ 일 시 : 2019. 10. 2. (수) 09:00 ~ 16:00 *기념식 10:00

○ 장 소 : 한라체육관 및 종합경기장 야외 광장 일대

○ 주최/주관 : 제주시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 참석자 : 관내 어르신 등 5,000여명

○ 주요내용 : 기념식(식전행사, 유공자표창(정부포상 등 45명내외) 민속경기대회 등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728-2491

제4회 제주음식박물관 개회

○ 기 간 : 2019. 10. 4. (금) ~ 2019. 10. 6. (일) [3일간]

○ 장 소 :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

○ 내 용 : 제주 특산 식재료 홍보, 제주음식소개, 건강한 식문화

홍보, 요리경연, 체험 등

○ 문 의 :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22

전국 독후감 공모전 안내

○ 사업 명 : 제3회 전국 문학인 제주 포럼 <전국 독후감 공모전>

○ 공모기간 : 2019. 10. 10. (목) 24:00까지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공모자격 : 만18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

○ 대상도서 : 문학·비문학 작품 중 자율 선정

○ 시상내역 : 최우수(1점, 1백만원) 우수(3점, 50만원) 장려(5점 20만원)

○ 기타사항 : 제주시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 ☎728-2714, 제주문화원 ☎722-0203

주간농업농촌소식

노지감귤 품질 향상에 다 함께 참여합니다.

□ 수확 할 때까지 비상품과 열매수기

○ 9월 하순까지 나무 속, 나무 밑 작은 열매

○ 10월 상순부터는 너무 큰 열매, 병해충 피해 열매 등

□ 품질 향상과 부피(淨度) 예방 캠페인 실행

○ 감귤제를 뿌리면 당도가 0.2~0.6브릭스 증가하고 착색이 촉진됨.

○ 세포조작이 강해져 부피 방지, 무름 증상이 줄어듬.

○ 감귤제 살포횟수 및 살포시기

- 탄산감귤: 2회(9월 하순, 10월 상순)

- 수형성감귤: 3~4회(8월 중순~10월 중순)

□ 감귤 이미지 향상 ‘부패과’ 줄이기

○ 총채벌레, 노린재, 초록애매미충 등 흡충 해충 방제

○ 수확 전 부패방지 작물보호제 살포

- 스포르곤ヺ해비지(수확 7일전), 베포라ヺ벨루트

(수확 14일전) 등

○ 수확할 때 상처를 최소화 하고 충격 줄이기

○ 수확은 비가 왔을 때 3~5일 맑은 날 지속 후 수확함.

□ 타이벡 피복 감귤원 관리요령

○ 빗물 유입 감귤원은 피복 재질을 걷고 토양 건조 후 다시 피복

○ 10월 간격 품질(당도, 산함량) 조사 후 품질 수준에 맞는 물관리

□ 수확은 완숙과 위주 구분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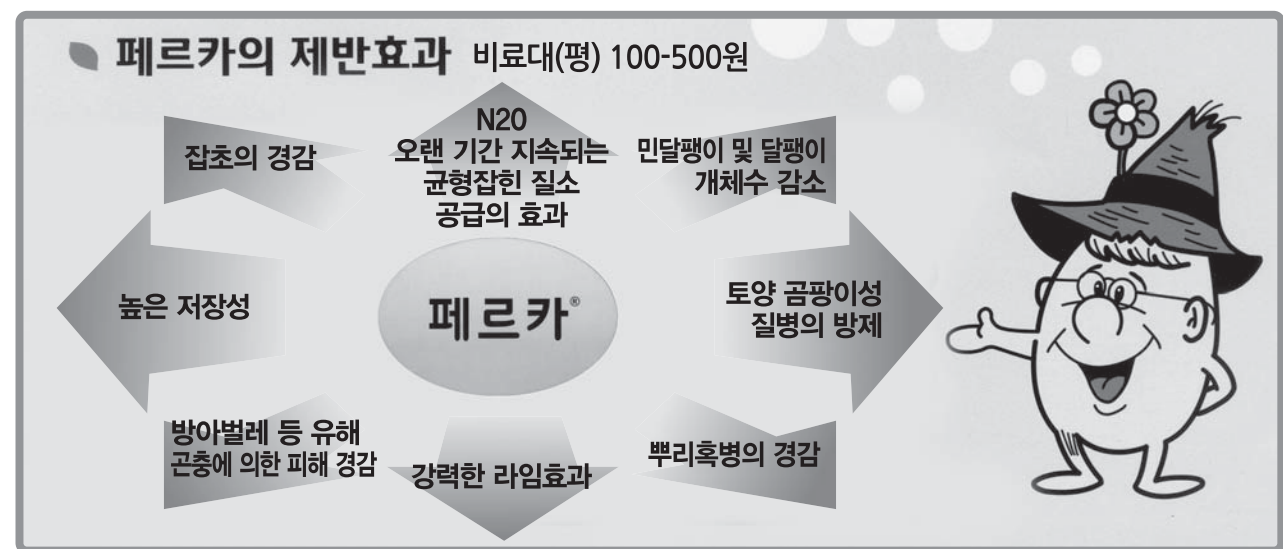
○ 수확 후 3~5일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예비 건조 후 출하

- 예비 건조를 하면 부패율 5.5% 줄이고 감귤이 5.1% 덜 됨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51)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파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